

태풍 휩쓴 완도군 특별재난지역 지정될까

전북 양식장 등 51억원 피해... '우심지역' 지정 수준 추가 집계 결과 따라 지정 될 수도... 전남 피해 90억

제19호 태풍 '솔릭'이 전북 양식장을 쓸고 간 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태풍 피해 잠정 집계 결과,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약간 못 미친 '우심지역' 지정 수준이다.

그러나 피해 접수가 이어지는 데다 전남도와 중앙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이번 피해 대책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중간에 분류 피해 산정, 전북막이인 다시마 피해 합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의 피해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도군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피해액 51억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심지역' 지정 피해 규모(최소 24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북 1440칸 27억원, 방파제 등 항만 41곳 파손 23억원 등 총 51억원의 피해가 났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정력 지수와 피해액 기준에 따라 우심지구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완도군은 2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우심지역 지정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다.

완도군은 아직 피해집계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가능할 수 있다.

완도군이 우심지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비 모두 100%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다만,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유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각각 지원된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시설 복구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완도군의 경우 태풍피해 규모가 우심지역 기준을 넘어섰지만 도와 중앙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최종 피해액이 확정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남지역 태풍 피해액은 9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낙과 128ha, 농경지 침수 248ha, 도복 49ha, 양식시설 2080칸, 수산물 230만1000마리(전북 210만마리,

어류 20만마리) 등 10종에 총 47억원 피해 규모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하천, 항만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등 784건에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도 51억원을 비롯해 고흥 11억원, 진도 4억원, 신안 3억원 등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솔릭'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양식 수산생물 피해 지원단기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수산생물 피해 시 복구 지원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8개월을 키운 납치가 500g에 미달하면 치어로 구분돼 종갓값만 지원받고 있다"며 "성어의 절반 크기인 중간 물고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은 최근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해양기후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완도 '해양기후 치유 시범 프로그램' 호평

197명 명사십리해수욕장서 노르딕워킹·요가 등 즐겨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실시한 '해양기후 치유 시범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해양헬스케어)의 하나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실시한 해양기후 치유 시범 프로그램에 197명이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해양 패들보드, 해변 필라테스, 해양 아쿠아테크(물속 걷기 운동) 등 5가지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았다.

아쿠아테크는 허리와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만성 통증과 퇴행성으로 인한 근골격계, 순환계 재활을 위한 운동법으

로 아쿠아테크 프로그램 참가자는 "무릎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강물보다 밀도가 높은 바닷물에서 걷기 운동을 해서 관절에 부담이 덜 가고 운동 효과를 한층 높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변 필라테스와 요가의 경우 실내가 아닌 해변 가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함으로써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 정신 건강에 유익해지는 것 같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3대 가족이 광주에서 내려왔다는 한성기 씨는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



완도군은 홍콩과 베트남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고 1400만 달러의 완도산 수산물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홍콩·베트남서 1400만달러 수산물 수출계약

동남아 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 미국·유럽 등 시장 공략 나서

완도군이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지역 수산물을 알리는 등 판로 확장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동남아 2개국(홍콩·베트남)에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전복과 김, 해조류 등 완도산 수산물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번 동남아 해외 시장 개척단에는 전북과 해조류 가공품 수출업체인 청산바다와 바다가득히, 한들수산, 하나물산, 영진수산, 흥일식품, JS코리아, KTS, 다시마 전북, 명품전복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홍콩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홍콩 13개사의 수산 전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총 30회의 수출 상담 결과 흥일식품은 챔피언 홍콩그룹과 청산바다는 뉴월드 트레이딩과 JS 코리는 홍콩 전역 매장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전문 유통 회사인 린스 트레이딩(폴리 대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2일에는 베트남 호치민 국제 수산물 박람회가 개최 중인 사이공 컨벤션 센터를 찾아 완도군의 10개 수산물 업체와 대한민국 수산물 협의체인 ASK(All about Seafood from Korea)의 7개 업체가 베트남 수출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회를 열며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베트남을 주 무대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SLS 컴퍼니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완도식품수출협회와 JS코리아 로얄시프드가 각각 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하며 베트남 수출 확대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또 이날 상담회에서는 완도군 홍보 동영상 시청과 수산물 및 가공 제품을 직접 설명했으며 베트남 유명 셰프를 초청해 완도산 수산물을 요리하는 '쿠킹쇼'도 마련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중국과 캐나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확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완도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 모집

해남군은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주)와 협업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스마트공장은 유형별로 제조현장 혁신 및 운영시스템과 환경안전 개선, 간이 생산시스템, 간이 자동화 및 환경안전시

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전문 인력을 별도 지원해 기술 지도할 예정으로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해남군청 홈페이지 군정알림이나 지역개발과(061-5305661)로 연락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대교 보강공사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통행 제한

보수공사를 위해 진도대교 통행이 12월 중순까지 전면 통제된다.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상판과 교량 연결구간의 보강공사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14일까지 진도대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방향 통행으로 운영하던 제2진도대교를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해 우회도로로 활용한다.

익산국토청은 진도대교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경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차량 속도 저감 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우회도로 홍보 강화 등 안전 확보를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